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운명적인 것을 말할 때 불자들은 '그것도 숙업이다' '모두가 전생의 업이야' '업보를 받는 것이지' 등으로 말한다. 흔히 하는 '그것도 팔자지'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난 해(年) 달(月) 날(日) 시(時)를 간지로 계산한 여덟 글자다. 간(干)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가지다. 지(支)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12가지다. 간과 지가 조합을 이루어 60갑자를 만든다. 사주팔자를 조합해서 운명을 보는 데에는 크게 두 방향이 있다. 그 하나는 과거의 숙업을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명을 피해서 개선해 나가

업보

과거세에 쌓은 업 금생에 영향 팔정도 육바라밀 실천 '팔자' 개선

는 이른바 개운의 법이다. 사주는 타고 났으나 다른 사주와 만나면 길흉과 길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개운법 사주의 골격이다. 따라서 사주팔자소관은 숙명론과 개척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숙업은 과거세에 쌓은 업이 금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업(業)이란 행위와 의지에 의한 몸과 마음의 활동이다. 업은 어김없이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 선업선과(善業善果), 악업악과(惡業惡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진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생도 과거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악업을 타파하고 선업을 쌓는 길로는 팔정도(八正道)와 육바라밀(六波羅蜜) 실천이 으뜸이다. 윤회전생을 마치고 해탈과 열반에 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데서 시작된다. 업장소멸을 위해 탐진치의 삼독심을 뽑아내고 8정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전과정을 수도(修道)라고 한다. 모든 것을 숙업의 결과라고 보는 속명론은 필요치 않다. 팔자도 고친다는데 숙업인들 개선하지 못하겠는가. 숙업은 수억만년 전부터 내려왔을 수 있다. 그 오랜 동안의 업을 70년 단기에 닦아 뽑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참고 안길모음 '이판사판 아담법적'

도시를 제외한 영남, 영남, 공원, 역운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책방에서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066, 732-1521

# “역시 불자는 다르다”

## 불자의 삶의 자세

**불**자의 삶의 자세는 무종교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불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여 구태여 다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불자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다른 종교의 앞에 서서 이롭고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불자는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얼마 전만 하여도 불자가 불자임을 숨겨 온 사례들이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이 “나는 불자입니다만 불자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유치원 원장이 기독교 신자이므로 불자임을 내세우면 파벌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는 녹음된 독경소리가 들렸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혹시 손님들 중에서 불경하는 사람은 없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가끔 있지요. 그러나 나는 행동을 잡을 때 독경소리를 들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불경하는 손님에게 설명하면 대개 이해를 합니다”라

김중서박사가 쓰는

## 불교와 교육 <27> 끝

###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 갖는 신행인과 믿고 계율 지키며 보시 생활화



그림 · 이준석

수 있는데 참선, 염불, 108배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면 빈 시간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 빈 시간을 이용하여 '관음정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운** 동구정에 가면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간단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하루에 5000번 염불을 하는 원을 실천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어려운 신행생활이다.

셋째로, 불자는 '인과의 법'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은 우리 생활을 이끄는 지표이다. 나는 흔히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의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세상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모든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이미 돈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집에 태어난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는데 모든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한 일만 하는데 액운이 닥치는 등 분명히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전생의 업

의 종자(種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은 업을 모두 가지고 간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짐 잔뜩 짊어지고 간다.

따라서 우리는 선인(善因)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선인에는 반드시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인(惡因)에는 반드시 악과(惡果)가 따르는 한 치의 어김없는 '인과의 법'이다. 불자는 '인과의 법'을 철저히 믿고 이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설혹 전생의 악인에 따라 금생의 악과가 나타나도 이 악과를 선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사이가 아주 나쁜 것은 전생의 원수들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미움 받는 것은 당신에게 지은 전생의 업 때문이니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원한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돌리는 생활이 바로 불자의 생활이다.

넷째로, 불자는 보시(布施)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시에는 재보시(財布施), 법보시(法布施), 무외시(無畏施)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남을 도왔다는 생각이 들면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 강경에는 “동방허공을 사랑(思量)할 수 있느냐? 남서북방, 간방(間方), 상하(上下) 허공을 사랑할 수 있느냐? 무주상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아서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다섯째로, 불자는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희박한 것 같다. 비행, 범죄 등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불자의 도덕적 표준은 높아야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교에서는 계율(戒律)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불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수계식(受戒式)을 해야 하는데 수계식이란 다름아닌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약식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가 도덕적 생활의 실천이다.

따라서 불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역시 불자는 다르다”, “불자는 참된 인간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해야 한다. 서장(書狀)에서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을 찾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릇을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 “불교는 일상생활하는 곳에 있으며, 행주좌와(行住坐臥)에 있으며, 차 마시는 곳에 있으며, 서로 말하는 곳에 있으며, 짓고 행하는 곳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중서박사께 감사드립니다.

### 불자들이 칭송 받을때 포교는 저절로 이뤄지고 불국토 건설된다 “불법은 생활에서 구하자”

고 말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자가용차에서 영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반가운 일이다. 백천만겁(百千萬劫)에 만나기 어려운(難遭遇) 불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 얼마나 자랑스러우나!

둘째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修行生活)을 해야 한다.

불자들은 불경독송(佛經誦誦)의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하루 생활을 보면 빈 시간이 그렇게 많다. 차타고 있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등 수 없이 많은데 이 빈 시간을 불경독송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나는 20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달리기, 걷기를 1시간 정도 한다. 이때 나는 불경독송을 하면서 달리기, 걷기를 한다. 예를들면, 반야심경, 법성계, 천수경, 금강경의 순으로 독송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금강경 독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였지만 마음속에 잡념이 들면 깜짝 다른 구절인 옆길로 새게 된다. 깜짝 놀라서 본 줄거리에 다시 접어들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줄거리를 한 번도 놓침이 없이 독송하면서 달리기 걷기를 한 아침은 하루 종일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수 없다. 신행생활로는 참선, 염불, 108배 등을 들



##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 지 석종후

신도일동 청림반야회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353-5016, 4924 FAX : 02-386-4198

**정각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불광사 · 불광법회**

대 중 일 동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TEL : 02-413-6062~2 FAX : 02-413-6781

**삼보사**

주 지 윤지원  
신도회 회장 홍성걸  
거사회 회장 박순배  
연화회 회장 차정순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TEL : 02-352-6406 FAX : 02-389-3262

대한불교 조계종 **삼성산삼막사**

회 주 서정대  
주 지 이성운

대 중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0-1  
TEL : 0343-71-5978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 지 일지  
신도회 거사리회

■ 오후 6:30 제등행렬 마하연출발 부평시까지 행렬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TEL : 032-523-9911 FAX : 032-511-6194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영화사**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회 주 송월주  
주 지 일원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9번지  
TEL : 02-444-4321, 7215 FAX : 454-8177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말사 정보사**

주 지 신천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산78-35  
TEL : 0346-594-2683, 1397

동양 최대 지정보살 권립 기도도량 · 기도원적 소원성취 **대운산도림사**

주 지 관진

지장회 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  
TEL : 052-237-4366, 238-6264

**두타산삼화사**

주 지 자광이원행

신도회 일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 0394-34-7661~2, 8313 FAX : 0394-34-7546